



21대 대통령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손자병법’, ‘삶터를 책임지는 사회’, ‘휴먼가인드’, ‘사람, 장소, 현대’ 등...

위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바랍을 담아 출판관계자가 추천하는 책들이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을 주제로 홈페이지에서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추천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앞서 언급한 책들 가운데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책 1위(5월 20일 현재)는 스티븐 레비츠카와 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교수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이다. 이들 교수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직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한다.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게 됐다.

같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이목을 끌었고 출판사 요청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재탄생한다.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독자들에게 회자가 됐다.

예스24, 15일까지 기획전 진행 ‘어떻게 민주주의는...’·‘손자병법’ 등 사회·정치·인문·소설 등 분야 다양

두 저자는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유사한 패턴으로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한다. 이 패턴의 공통점은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분들이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와 탄핵, 파면을 거치며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를 겪었다.

한 회원이 남긴 댓글 가운데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세요!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반하는 정치를 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세요’라는 문구는 울림을 준다.

역사학자 임용한이 펴낸 ‘손자병법: 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은 병서의 고전을 역사로 읽어내는 책이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전략가 손무가 원저자다. 기원전 6세기에 소개된 이래 해설서만도 수천 권에 이를 만

큼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받아왔다. 오늘날에도 ‘손자병법’은 경영서, 처세서로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인류학자 김현경의 ‘사람, 장소, 현대’는 ‘현대’ 등의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저자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구조기능주의가 아닌 사람, 장소, 현대라는 세 개념을 토대로 사회를 다시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왜 현대가 필요한지 책은 다양한 참고 문헌을 매개로 보여준다.

회원들이 추천한 책들도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양상을 반영한다. 니콜로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박상규의 ‘자연된 정의’, 토마 피케티, 마이클 샌델의 ‘기술어진 평등’, 강부원의 ‘한국 현대사를 뒤쫓는 40가지 사건’ 등도 추천 목록에 있다.

한편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 포인트 500원을 선물한다.

예스24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직접 소통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6월호

예향



시민 품으로 돌아온 ‘녹색 도시’ 광주의 미래 ‘공간의 재발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지천 하루의 일상을 휴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공원’을 꼽는다. 그래서인지 세계 대표 도시들은 도시의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대표 공원을 품고 있다. ‘녹색 도시’ 만들기엔 집중하고 있는 광주시에도 오는 2027년이면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원이 탄생될 예정이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6월호는 특집으로 ‘광주의 미래, 녹색 도시를 그리다’를 준비했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광주의 도심 속 공원과 국내·외 도시들의 예술공원을 소개하고 ‘녹색 도시’ 광주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본다.

‘공간의 재발견’ 코너에서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자리한 호랑가시나무창작소를 찾아가 본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광주 양림동의 호랑가시나무 언덕에 자리한 ‘아트 폴리곤’은 옛 선교사 사택을 개조한 숲속의 미술관이다.

무엇보다 400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호랑가시나무와 레시던시, 야외 공공미술작품이 어우러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최근들어 드라마와 영화의 무대로 주목을 받는 등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변신한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의 모든 것을 담았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전남 탐방 기획 연재 ‘남도 체험로드’ 첫 여정은 ‘빙그레 웃는 섬’ 완도로 향한다.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해양치유센터, 완도수목원 등 감상 스폿을 소개하고, 윤선도의 예술혼이 깃든 부용동 원림과 완도

최초 개인미술관인 성백미술관은 아틀리에 코너에서 만나본다. 모링가 음료를 맛볼 수 있는 수목원 앞 ‘완도’ 카페는 예향이 추천하는 감성 라운지다.

예향 취재팀이 아침차게 준비한 코너는 ‘특별해서 더 맛있다, 열대과일의 땅 전남’이다. 벼농사, 배추농사를 짓던 전남 땅이 기후 변화와 기술 발전, 농가 소득 다변화 노력과 만나면서 국내 열대작물 재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때, 수입 과일로만 여겨졌던 망고, 바나나, 파파야 나무가 눈앞에서 자라고 있고 아열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던 커피나무도 국내에서 재배된 지 이미 오래다. 영광 망고, 해남 바나나, 장흥 파파야, 담양 커피 농장의 생생한 재배 현장을 소개한다.

‘화제의 전시’ 코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10주년 기념으로 오는 8월 24일까지 전시중인 ‘예호가 편지’ 현장을 들여다본다.

트로트와 도시소리풍경,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뽕짝, 연계전시 등 3개 섹션으로 나뉘어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등 5개국 13팀의 작품 14점이 다양한 기술과 매체로 구현돼 있다.

이외에도 유럽 소도시 기행 두 번째 이야기 ‘괴테가 사랑한 도시’ 독일 하이델베르크, 호남의 누정 시조2 ‘고려말 선비 전신민의 지조’가 오롯이 남은 담양 독수정,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66년 트로트 이콘 엘레지 여왕 이미지 은퇴 무대 이야기가 준비돼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채용신의 ‘팔도미인도’를 모사한 작품.

옛 그림에 마음을 담다

조일욱 초대전, 오늘까지 무등갤러리

“옛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서정적인 감성과 정갈한 가르침이지요. 특히 조선시대 풍속화를 비롯해 민화에 담긴 밋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다른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단아하면서도 세련됨을 느낄 수 있죠.”

동구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4일까지 ‘옛 그림에 마음을 담다’를 주제로 전시를 여는 조일욱 작가의 말이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해원 신윤복, 석지 채용신의 작품을 모사한 작품 등 모두 70여 점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다. 2·3년에 걸쳐 전시를 준비했으며 이번이 첫 개인전이다.

조 작가는 “파카소의 작품처럼 세련되고 간결한 그림도 좋아하지만 옛 그림을 통해 평온함과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 그림의 모사를 통해 선 터치나 색상의 신비함을 배운다”며 “옛 사람들의 표정과 눈빛, 의상 등은 아련한 향수를 발한다”고 덧붙혔다.

해원의 ‘월하정인’, ‘소년전랑’, ‘춘색만원’, ‘월야밀화’ 등의 그림에는 청춘과 은은한 사랑이 배어 있다. 그 시절에도 청춘남녀는 만나 사랑을 나누었고 젊은날 자신들만의 꿈을 꾸었던 것이다. 옛 시대의 사랑에는 오늘날의 그것과는 다른 낭만감과 순수함이 드러워져 있다.

전시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채용신의 팔도미인을 모사한 그림이다. 조선시대 지역마다 다른 여인

들의 단아함과 아름다움, 저마다 다른 미의 기준 등을 느낄 수 있다. 장성관기 ‘취선’은 선이 굵고 콧망울이 작으며 아담한 용모가 특징으로, 전형적인 미인의 상이다. 16·17세기에 장성에서 활동했던 기생으로 특히 시문에 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작가는 “팔도미인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자”며 “옛 여인들의 기품있는 자태와 고혹적인 표정은 특유의 매력에 깃들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작가는 목포대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목포대 국제차문화학과와 교과담당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한국화대전 한국화부문 특선, 2013년 한국화대전 광주시전 민화부문 특선에 뽑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서관이 먼저 다가옵니다”

광주 문화의숲도서관, 정보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 도서관이 직접 발걸음을 옮긴다.

광주 문화의숲도서관이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을 운영한다. 빛남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케어링주간보호센터 광주분남점을 대상으로 각각 6회씩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인, 장애인 등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 통합놀이, 도서 연계 독후활동, 문화예술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쉽고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며 독서력과 표현력 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팀 홍지영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의 독서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소통과 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광주 서구문화센터 문화의숲도서관 전경. (서구문화센터 제공)

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SPACE DDF 오픈-포트폴리오 9일까지 참여 작가 공모

SPACE DDF는 광주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한 개방적 대안예술공간을 지향하고 폭넓은 대관 및 기획 전시를 열어왔다.

SPACE DDF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오픈-포트폴리오 OPEN-PORTFOLIO’의 참여작가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심층적인 포트폴리오 리뷰를 원하는 예술인들을 선정해 최종 2명의 작가 또는 콜렉티브에게 개인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진행하는 ‘오픈-포트폴리오 OPEN-PORTFOLIO’는 참여작가에게 전문가 3인의 심층적인 포트폴리오 리뷰를 제공하고, 리뷰어뿐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 자신의 예술세계와 포트폴리오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신인 작가들에게는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초여름, 서정의 멜로디가 흐른다

작곡가 김남삼 창작 가곡 발표회, 8일 서빛마루문예회관

초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서정적인 멜로디가 지역민의 마음을 두드린다. 작곡가 김남삼의 창작 가곡 발표회가 오는 8일 오후 3시 광주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문화예술협회가 주최, 디자인상상이 주관하는 이번 발표회는 김 작곡가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무대에 40여 년간의 여정을 담아낸 김 작곡가는 ‘그대 그리운 날’ (이선나 시)을 비롯해 ‘포옹’, ‘달빛’, ‘눈빛’, ‘사랑의 비둘기 되어’, ‘노을 그대’ 등 총 12편의 창작 가곡을 선보인다. 특히 강성남, 김양화, 정호영 등 광주·전남 지역 문인들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들이 무대에 올라, 지역문화와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정지원·신은선, 바리톤 김지영·손승범 등 4인의 성악가들이 자신의 곡의 깊이를 정서를 노래한다. 반주는 이치은 피아니스트가 맡는다.

여기에 ‘시니어동요합창단 어깨동



작곡가 김남삼

무’가 특별 출연해 김 작곡가의 동요 작품 ‘새싹들이다’, ‘비 오는 오솔길’, ‘우산 속의 요정’을 부르며 맑고 순수한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

일에는 김 작곡가의 작곡집과 독집 음반도 함께 증정된다.

동요 작곡가로 오랜 시간 활동한 김 작곡가는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뒤 2018년부터 가곡 발표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멈춰 있던 발표회가 다시 열리며, 이번 무대는 한층 무르익은 감성과 깊이를 담아내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김 작곡가는 “6월의 정취 속에 새 가곡을 처음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서정 가곡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진심 어린 선물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초대.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